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농업 육성관 건립』 건축 설계공모 심사 결과

□ 개요

-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대지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3458번지 외 1필지
- 공사비 : 52.2억 원(설계용역비 2억 원)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축물 개요
 -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 증축 1,800㎡(±5% 범위 내 조정 가능)
 - 층수 : 지하1층, 지상2층


□ 심사개요

- 일시 : 2020. 7. 8.(수) 10:00 ~ 19:00
- 장소 : 제주건설회관 3층 회의실
- 신청작품 : 16개 작품

□ 심사결과

접수번호	순위	보상금	업체명	비고
16	당선	설계용역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이창규)	
2	2위	8,000천원	황어소시에이츠건축사사무소(황선기) 건축사사무소 소현(양현준)	
12	3위	6,000천원	유원건축사사무소(허동호)	
3	4위	4,000천원	건축사사무소 사이(정익수) 에이피에이 건축사사무소(조진홍)	
4	5위	2,000천원	타코 건축사사무소(탁현경)	

□ 당선작

구 분	심 사 평
<p data-bbox="168 323 595 357">당선작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현지 사정이나 대상자들의 연령, 행태 등을 잘 이해하였으며, 단순해 보이는 일자형 구성 속에 외부마당이나 선큰마당, 조각마당 등을 잘 구성하여 내부에서 밖을 보는 풍경이 좋았으며, 삶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였음. 다만, 매스나 재료의 사용에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해 보임 • 형태와 공유부의 배치와 계획이 추상적 논리에 근거하기 보다 모아진 현실 재료, 상황, 사용자에 특정한 고민에 근거한 건축적인 대응의 종합으로 읽힘 •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과 그 내용이 결과물에 잘 녹아 있고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계가 훌륭하나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내부공간의 설계가 우수함, 공간의 활용도 및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이 좋음. 주변 맥락에 이질적인 오브제 같은 배치임.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입 상 작

구 분	심 사 평
<p>2등작 황 어쏘시에이츠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소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조형감각, 균형미, 배치에서 보이는 외부공간과 주변 풍경과의 조화 등이 무척이나 완성도 있고 섬세하게 설계된 우수한 작업이라 여겨짐 다만, 이러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구성이 제주도민이나 현지의 상황, 삶의 형태 등과 조화로우려 하는 점에서 의구심이 있으며, 통합적이기 보단 분절적인 느낌이 들었음. • 완성도 있는 계획안(논리의 구축에서 조형까지) 임. 증축건물로써 기존 건물에 열린 태도의 아쉬움, 사용자를 특정하고 있는 공공 건물로써 스스로 완결하기 보다 사용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아쉬움. • 평면과 형태가 세련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으나 지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입히지 않아 아쉬움 •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이나 배치에서 대지의 활용도가 우수함. 전체 외장재의 흐름이 다소 아쉬움. • 도시(경관)에 대한 해석이 탁월하고 각 공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훌륭함.
<p>3등작 유원건축사사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의 중정과 마당, 외부의 마당 그리고 그것을 구획하는 ‘돌담’이라는 제주적인 요소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좋은 작업임. 다만 세분화 하여 마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선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나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느낌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 • 공간의 구심이 될 외부공간과 중정의 세밀한 계획이 돋보이나 그 공간들이 전체공간의 활용에 합리적으로 작용될지 설득력이 적음. • 지형을 활용한 배치와 각 기능의 배분이 명확하고 다양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외부공간의 분절로 인한 연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움. • 다양한 공간의 연출이 돋보이며 각 기능들의 조닝이 적절하나 전체적인 흐름의 연결이 다소 미흡한 아쉬움이 있음. • 세밀한 공간에 대한 설계가 돋보이나 전체적인 연결이 아쉬움.

□ 입 상 작

구 분	심 사 평
<p>4등작 건축사사무소 사이, 에이피피에이 건축사사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운데 중정을 두고 앞에 마당을 시원하게 두어 전체적인 조형적 단순함이 돋보임. 외부공간들도 크게 구성되어 시원하고 활용이 잘될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응하는 평면적 구성이 부족하고 대강당 주진입이 북서쪽 코너에 몰려 있어 이 또한 편중된 느낌이 있음. • 외부공간에 할애된 비중에 비해 실제로 그 공간을 작동시킬 내부공간 프로그램 배치와 계획이 다소 아쉬움. • 도로에서부터 육성관까지 별도의 보행자 진입공간을 확보한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나 외부공간을 통한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이 아쉬움. • 기존 건물과의 연계가 배치, 외부공간의 연결이 우수함. 평면의 풍부한 내용 및 기능적 배치가 지나치게 단조로운 아쉬움이 있음. • 외부공간에서 진입하는 과정이 뛰어남. 단, 내부와 외부의 관계성이 좀 더 고려되었음 하는 아쉬움이 있음.
<p>5등작 타코 건축사사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경관요소로 비닐하우스에 주목하여 설계를 발전시킨 것이 의미있어 보이며 배치에서도 적절한 규모로 주변에 경관을 열었다는 부분도 평가할만함. 전체적으로 평면이 내·외부관계가 소통이 적고, 외부공간이나 처리가 부족해 보여 개선이 요구됨. • 조형의 모티브를 주변의 소박한 경작 풍경에서 과감히 가져온 부분이 인상적이나 건축적 도구로써 충분히 탐구되지 못해 아쉬움 • 비닐하우스를 새로운 경관 요소로 사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형태에 집착한 나머지 내부공간의 기능성과 형태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 • 유니크한 매스감이나 조형성이 탁월함. 다만 평면, 공간과 매스간의 조화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외관에 편중된 부분이 아쉬움 • 경관에 대한 해석을 끝까지 유지한 것이 높이 평가됨. 스케일과 형태에 대한 고려가 내부공간에 적용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